2015 커리어패스 사례집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



안전분야

Safety

위험에 맞서며 안전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어 서민과 법의 거리를 좁히다
-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료 활동을 하다
-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다
- 야생동물을 치료하여 발견한 장소로 돌려보내다
- 응급한 사람들의 1차 치료를 책임지다
- 재난을 예방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꿈꾸다

2015 커리어패스 사례집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 안전분야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커리어패스 사례집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

안전분야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차례

01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어 서민과 법의 거리를 좁히다
• 이미연 〈동네 변호사 카페〉 변호사 … 07

02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료 활동을 하다
• 모현희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장 … 19

03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다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29

04
야생동물을 치료하여 발견한 장소로 돌려보내다
• 박용현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재활사 … 39

05
응급한 사람들의 1차 치료를 책임지다
• 최유진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 53

06
재난을 예방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꿈꾸다
• 전찬기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 63

안전분야



01

의정부 제일시장에 법률사무소를 차려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어 서민과 법의 거리를 좁히다

〈동네 변호사 카페〉 변호사

이미연

• **누구의 이야기?**	조직 생활이 싫어 〈동네 변호사 카페〉라는 독특한 방식의 법률사무소를 차린 변호사
• **하는 일은?**	변호사로서 서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돕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경희대학교 법학과 진학→네 번의 도전 끝에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수료→2012년 〈동네 변호사 카페〉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며 운영하고 있음
• **장래 포부**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 **그의 한마디**	너무 멀리 보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고민하고 불안해하느니 차라리 당장 오늘 일에 몰입하는 편이 낫다.
• **더 알고 싶다면**	〈동네 변호사 카페〉 홈페이지 http://dongbyun.tistory.com/

이미연

〈동네 변호사 카페〉 변호사

"안녕하세요. 〈동네 변호사 카페〉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률 상담은 3층에서, 커피와 차와 케이크는 2층에서." 의정부시 제일시장에 있는 어느 한 건물에 붙은 안내문의 내용이다. 〈동네 변호사 카페〉라는 독특한 이름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은 변호사 이미연 씨가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겸 카페이다. 법률사무소가 더 위층에 있기에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미연 씨를 찾아올 때면 늘 향긋한 원두커피의 향기가 그들을 먼저 맞이한다. 그리고 그녀의 사무실 역시 카페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통 변호사라고 하면 대형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나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일하는 인권변호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주변

에는 일상적인 법률문제를 다루는 평범한 변호사들이 훨씬 많다. 그러한 일상적이고 생활에 밀착되어 다가가기 쉬운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는 동네 변호사 이미연 씨를 만났다.

제가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여성학에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미연 씨는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공부에는 통 관심이 없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느라 그녀의 진로를 챙겨줄 여유가 없었고, 특별한 꿈도 목표도 없었던 그녀는 친구들과 어울리기에 바빴다. 그런 그녀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앞두고 뒤늦은 공부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와 가장 친한 친구가 하필이면 지역에서 가장 경쟁이 심하기로 유명한 의정부여자고등학교에 들어가야겠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연합고사를 석 달 앞두고 친구와 같은 학교에 들어가겠다는 일념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된 것 같아요. 입학하고 나서는 성적이 중하위권 정도였어요. 근방에서 1, 2등 하는 아이들이 와서 그런지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 따라서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성적이 쭉쭉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성적 올리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 진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녀는 자신의 점수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교대와 법대라는 선택지를 두고 잠시 고민을 했다. 둘 다 딱히 원하는 전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재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녀는 어머니가 바라는 법대를 택했다. 그렇게 그녀는 경희대학교 법학과 신입생이 되었다. 법대에 들어가니 일찍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사실 그녀는 그때까지만 해도 법조인이 될 생각은 없었다. 그러던 그녀가 본격적으로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여성학에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였다.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앉혀 놓고 자본주의, 노동운동, 신자유주의 같은 이야기들을 해줄 때면 머리가 아팠는데 여성문제만큼은 관심이 가더라고요. 여성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책이나 영화, 잡지도 찾아보고 관련 세미나를 찾아다니며 토론도 하고 그랬죠. 그때 처음 보고 들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자매들 사이에서 자라 여중, 여고를 나온 저에게는 그야말로 '컬처 쇼크'였어요. 이후에 저는 전공을 살려 여성문제에 관한 판례를 공부하고, 법률조항 안에서의 남녀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기도 하면서 관심을 특화시켜 나갔어요. 2학년 때에는 법대에 여성학 소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했고요."

사법고시에서 첫 실패를 겪었을 때 다른 길을 찾을까 고민하며 방황도 했었죠.

미연 씨는 햇수로 7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2학년을 마치고 그녀는 사법고시를 준비할 생각으로 휴학을 하고 신림동으로 갔는데, 이후 세 번의 고배를 마셨다. 동기들과 비교하여 늦게 공부를 시작한 탓이었는지 그녀는 동기들보다 조금 늦게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오로지 사법고시 준비에만 매달린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 신림동에서 기초적인 공부만 하고 시험을 치렀다가 터무니없는 점수를 받고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 처음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때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당시 학점 관리도 잘 안 되어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린 나이였는데도 그때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잠시 시험을 접기로 하고 6개월 정도 돈을 벌어서 유럽 여행을 떠났죠.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2차에서 한 번 떨어지고, 그다음 2차에서 붙게 된 거예요."

신림동에서 학원을 다니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그녀는 사람들과 일절 어울리지 않았다.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이나, 밥을 함께 먹는 일명 밥터디를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녀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편했다. 그래서 학원에서 필요한 과목 수업만 들으면 곧장 집이나 독서실로 향하곤 했다. 그녀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말로 그 시절을 표현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영화나 만화책을 보고, 친구들과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그런 것을 전부 끊어야 했잖아요. 제가 놀러 다니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가장 반짝거릴 나이에 하고 싶은 일을 외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 교대에 간 친구들은 임용고시 붙어서 학교에서 5, 6년 차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정말 독하게 공부했죠. 시험에 합격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잘 버텨낸 제 자신이 대견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요."

처음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에는 검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듣고 미연 씨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행복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런 기분도 잠시, 진정한 고생길은 그다음에 열렸다. 사법연수원 내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사법고시 공부의 열 배 이상의 부담감을 주었던 것이다. 대학에 다니던 때부터 여성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처음에 검사를 꿈꿨는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검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2년 동안 연수를 받는데, 1년 차 때는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2년 차 때 실무 수습을 해요. 실무 수습을 하면서

실제로 그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었죠. TV에서 보면 검사가 범인을 막 때려잡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검사의 주된 업무가 공소장을 쓰는 것이거든요.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사건에 대한 기초수사 단계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에서는 그것의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 사실에 어떤 법조항이 해당하는지를 공소장에 작성해서 그걸 법원에 제출하죠. 보통 사건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역동적이지 않은, 검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잃게 되었죠."

사법연수원에서 생활하는 내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그녀는 '나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연수원 내 인권법학회 활동은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 인권법학회에서는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단체 〈공감〉이 생긴 이래 8년 만에 처음으로 공익전업변호사를 배출했는데, 당시 그녀의 동기들은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내부 펀딩을 통해 운영자금을 모았다. 그때 생긴 단체가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공익인권변호사 단체인데, 그 이후로 사법연수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익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권법학회 사람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한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었다.

"연수원을 수료할 때는 최종 성적에 맞춰서 판사, 검사, 변호사 순으로 결정되어요. 그래서 법원과 검찰에 못간 사람들이 변호사가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법원 성적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학벌이나 인맥 같은 것을 조사해서 스카우트를 하고는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분위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국 법조인은 누구나 마지막에는 변호사가 되거든요. '판검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선택이 변호사'라는 생각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상적이고, 생활에 밀착되는 그런 '동네 변호사'이고 싶어요.

미연 씨는 누군가에게 고용되거나, 로펌이라는 조직 안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이미 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관련 지식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충분히 혼자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012년 2월에 사법연수원 생활을 마치고, 그녀는 곧바로 지금의 〈동네 변호사 카페〉를 열었다. '서민을 위한 지역 밀착형 법률사무소'를 지향하는 그녀의 사무실은 의정부 제일시장 안에 있는데, 여기에는 그녀만의 이유가 있었다.

"검찰에서 실무 수습을 하면서 동료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한 대형 로펌을 찾았던 적이 있었는데 왠지 주눅이 들더라고요. 법조계에 있는 제가 그 정도이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래서 그때 변호사 사무실을 법원 앞에 열지 않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의정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고, 제일시장은 어릴 적 자주 찾았던 곳이라 친근해서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녀는 법률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어느 가게에 들

르듯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자신을 '동네 변호사'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오로지 서민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었다.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데, 그녀가 맡았던 사건들은 아주 간단한 일반 민사 또는 형사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이를테면 집 보증금을 떼였다거나, 길거리에서 폭행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거나, 이혼소송을 하고 싶다는 등의 일들이었다.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담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묵혔다가 그 일이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때는 이미 시간도 늦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죠. 초기에 법률 전문가가 투입되어 하루빨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그분에게도 좋고 사회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병원으로 예를 들면 동네 병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이 잘 되어 있어야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법률 쪽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은 계속 고민하며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 같아요.

〈동네 변호사 카페〉를 개업했던 첫해에 미연 씨는 자신의 일이 천직이라고 느꼈을 만큼 즐겁게 일을 했었다.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그녀는 여느 3년 차 직업인들이 그러하듯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일이

주는 흥미와 스트레스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기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는데,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예민하고 다루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 정신적 피로감이 엄청나죠. 변호사는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10년 차인 분들도 이맘때 많이 힘들었다고 하니, 그분들을 보고 버티는 것이죠. 그리고 10년 차가 되어도 이러한 고민은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계속 고민하면서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씩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면 '성실함'과 '글쓰기 실력'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는 일이 워낙 많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성실함은 필수이고, 우리나라는 구두변론주의가 아니라 주로 서면으로 법적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서류를 통해 판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을 정도의 글쓰기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다.

"저는 앞으로 이루고 싶은 특별한 계획이나 꿈은 없어요. 그저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 생각이에요. 너무 멀리 보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고민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당장 오늘 일에 몰입하는 편이 낫죠. 그날그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하다 보면 결국 다 내 안에 쌓이게 될 거예요. 나이는 공평하게 먹는 것이니까요."

안전분야



02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료 활동을 하다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장

모현희

• **누구의 이야기?**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해 온 공공 의료인
• **하는 일은?**	동작구 보건소의 수장으로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며 보건소를 운영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조선대학교 의학과 졸업→연세대학교 보건정책 전공 석사 학위 취득→서울시 동작구, 양천구, 광진구 보건소에서 의사, 의약과장 등으로 근무→현재 동작구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
• **장래 포부**	동작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일하고, 의사로서 자신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
• **그의 한마디**	의료인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모현희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장

보건소는 질병의 예방과 진료,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에 설립된 공공 의료 기관이다. 예방접종을 통한 전염병이나 질병 방지 관리, 모니터링, 사회적 의료 복지 지원,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부터 만성질환과 합병증 예방 관리, 지역의 위생업소 관리, 미용실이나 식당, 의료 기관 등의 관리 업무와 의료 교육 등 매우 다양한 업무를 보는 보건소의 직원들은 모두 공무원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의료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건소에서 일할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 의료를 업으로 삼고 25년을 살아온 동작구 보건소장 모현희 씨를 만나보았다.

남을 돕고 사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현희 씨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천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수많은 역할 중에서 그녀는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가 본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살아가는 데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마음이라는 생각이었죠."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품은 그녀는 조선대학교 의학과에 진학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성적에 맞춰 의대에 갔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의 괴리감에 괴로워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그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소문처럼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적응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1%도 안 될 거예요.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 드러나 보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적응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1980년 초반, 그녀의 의과대학 생활은 평범했다. 재미를 추구하는 사회도,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정보가 많던 시절도 아니어서 그녀는 집과 학교를 오가며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충실했다.

가정생활과 의료 활동의 병행을 위해 선택한 것이 공공 의료였어요.

"저는 다양한 의학 분야 중에서도 중환자를 보지 않는 과를 원했어요.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대한 겁이 좀 있었거든요. 각 과를 돌아가며 적성을 찾는 과정에서 소아과나 가정의학과가 저와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인턴 생활 중에 결혼을 하게 된 그녀는 육아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열심히 공부를 해 이뤄낸 직장 생활도 중요했지만, 엄마로서 아이를 돌보야 할 의무 역시 쉽게 내팽개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고민 끝에 가정생활을 지키면서 자신의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보건소에 왔다.

"병원은 진료를 잘하고 환자의 병을 잘 치료하면 되지만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이뤄지는 보건행정이라 폭이 넓고 시야도 넓어지고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육아 때문에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레지던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건소에 왔어요. 레지던트를 안 한 것은 후회되지만 보건소에서의 삶 자체가 공공 의료를 통해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 제 삶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적응도 잘했고요."

그녀는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 의사, 양천구 보건소 의약과장, 양천구와 광진구 보건소장, 서울시 보건의료과장, 서울시 어린이병원장 등을 거쳐 현재 동작구 보건소 소장으로서 일하고 있다.

보건소는 지역 구민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거예요.

현희 씨는 동작구 보건소장으로서 2015년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메르스에 대처하는 데 큰 힘을 보탰다. 자치구별 유동인구가 서울의 자치구들 중 상위 5개 안에 들 정도로 많은 동작구에서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었던 데에는 그녀를 비롯한 보건소의 160명 직원에 의사 10명, 간호사 80명, 약사 5명, 의료기술자 15명, 보건행정 전문가 등 모든 인력들의 노력이 컸다.

다른 지역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엔 의료진도 다수 있었고, 확진 환자가 있는 다른 지역의 병원을 방문한 사람도 있는 상황이었다. 동작구 보건소 측에선 관리 대상자를 200여 명 정도로 잡고 기본적으로 자택 격리와 기타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의료 기관에 감염 환자들이 있으니 주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보건소에 오면 감염 여부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진료센터도 따로 운영했다.

"주민들이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서 보건소에 전화도 많이 왔었어요. 주민들을 위해 관련 상담직원도 배치해서 전화 응대를 하고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라든지 대처 요령이라든지 물품 같은 것들을 복지관이나 저소득층이 모여 있는 곳에 지원했죠. 자택 격리를 당해서 생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이나 생활비, 생필품 지원을 했어요."

당시 많은 주민들이 동요하며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보건소는

최대한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결국 동작구엔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접촉자는 많았으나 확진자는 없었다. 그녀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사명감을 바탕으로 헌신한 직원들과 구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큰 역할을 한 것이라며 공을 돌렸다. 병원은 진료를 잘하게끔 돕고, 환자는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게끔 도운 전반적인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보건소의 순기능을 보여준 사례였다.

의료인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의사라는 단어에 사람들은 대학병원이나 개인 병원 등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의사라는 직업에도 여러 분야가 존재한다. 동작구 보건소에만도 공공 의료에 종사하는 공공 보건의가 열 명이나 있다.

"요새는 의사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학교에서 기초학 연구를 하기도 하고, 공중 보건 일도 하고, 공공 의료 기관 행정직에 있기도 있고, 감염병 관리를 하기도 하죠.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도 있고, 각종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종은 많아요. 분야가 워낙 많으니까요. 보건소라는 곳은 중요한 행정기관이고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이에요. 이쪽 일을 하고 싶다면 의료인으로서 환자와 만날 것인지, 아니면 행정을 할 것인지와 같

은 기본적인 선택을 하고서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녀가 꿈꾸는 인생의 목표는 동작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과 좋은 할머니가 되어가는 절차를 밟는 것, 그리고 의사로서 자신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의료인으로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잘 살 수 있게끔 건강하게 만드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료인의 자격은 뛰어난 지성이나 스킬 같은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단순히 돈을 벌거나 세간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이 바로 의료인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약 25년을 공공 보건 일에 힘을 쏟은 의료인으로 살아온 그녀는 대학원 석사를 취득하고 학회를 다니며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힘쓰는 사회인으로서의 활동도 열심이었다. 은퇴 후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 그녀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멘토를 찾는 것과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꼽았다. 그녀가 의료인이 되기까지 스스로의 노력과 열망도 중요했지만, 막연히 남을 돕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멘토의 역할을 해주신 부모님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는 직업에 대해 막연히 생각하기 마련이어서 그 직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의료 쪽

일을 하기 위해선 학업이 우수해야 하고요. 의료 쪽 일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인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의료인을 꿈꾼다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해요. 꿈을 꾸면 어디로든 길이 열리기 마련이니까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전분야



03

토목지질공학 전공을 바탕으로 재난재해의 해결법을 찾는 산사태 전문가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수곤

• **누구의 이야기?**	토목공학과 지질학 융복합 공부를 토대로 산사태 전문가가 된 토목공학과 교수
• **하는 일은?**	사회와 연결된 재난재해의 원인과 해결법을 찾고 돕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토목지질공학 전공→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리즈대학 대학원 토목지질공학 석사 취득→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대학 대학원에서 '화강암 풍화'로 박사 학위 취득→한국지질자원연구원 8년 근무→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재직 중
• **장래 포부**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을 하는 것
• **그의 한마디**	꿈을 얼마나 크게 꾸느냐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진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 재해가 일어난다. 그리고 태풍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적인 재난 못지않게 날이 갈수록 인간의 이기심과 방심에서 시작된 인재(人災)가 일어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립대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이자 전 세계 산사태 대가 22인 중 한 명이기도 한 이수곤 씨는 사회 재난 문제 전문가이자, 사회 개선을 바라는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재난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유착 관계가 심한 한국에서는 아무도 약자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는 재난재해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 어떤 이해관계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 잘못된 것에는 서슴없이 쓴소리를 내뱉으며 약자의 편에 서는 산사태 전문가 이수곤 씨를 만났다.

원하지 않았던 공학자가 된 데에는 영국에서의 경험이 결정적이었어요.

지질학을 전공한 수곤 씨는 원로 지질학자였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은 지질학 전공자가 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한 분야의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약사였던 어머니에게 주도권을 뺏긴 채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의대를 지망했던 그는 제2지망으로 지질학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반년 동안 지질학과에 다니다가 반수를 하여 다시 한 번 의대에 지원했으나 또다시 떨어지고 말았다.

"대학 생활 중간에 군대도 다녀오고 방황도 많이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취직도 해보고 다른 진로를 찾아보기도 하다가 영국에서 토목지질공학 석사를 이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떠난 영국에서 저는 지질학과 토목공학을 융복합적으로 배우는 공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의 배경이 되는 도시 리즈의 리즈대학 대학원에는 20명의 학생 중 두 명을 반드시 탈락시키는 전통이 있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어도 잘 못하는 외국인인 자신이 탈락자가 될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대학원에 있자니 탈락할 것만 같고, 직장이 없어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인생을 포기하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만큼 궁지에 몰렸던 순간, 그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대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어려웠지만, 더군다나 생소한 토목공

학 전공도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이 없어서, 한국에 연락해서 우선 한국어로 된 전공 책들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주변의 원어민 친구들을 괴롭히다시피 하며 영어를 물어보았다. 어떻게든 해내야 하고 살아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결국 탈락자는 그가 아닌 영어가 모국어인 다른 두 명이었다.

"내가 죽기 살기로 진짜 열심히 하면 내 인생에서 못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해내니 이제는 무엇을 하더라도 무서울 게 없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석사 과정을 통하여 제가 큰 자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밖에 못해.'라면서 자기 능력에 대해 스스로 어떤 한계를 지어버려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 자기 능력 밖의 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나도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라는 자각과 함께 자신감도 갖게 되더군요. 그리고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신과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게 가장 힘든 거더라는 교훈도 얻었고요."

석사 과정은 참 어려웠지만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 시기가 되었고, 자신감을 얻게 된 그는 소극적인 성격에서 적극적인 성격이 되었다. 이후 그는 토목공학과 지질학을 합친 융복합 전공에 재미를 느끼고, 토목지질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시작했다.

"물고기가 물 만난듯 하루하루가 부쩍 크는 느낌이었고, 이때 공부가 좋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도

없이 공부했고, 런던이 국제적인 관광지인데도 런던 구경을 박사 학위 논문을 끝낸, 3년 반이 지난 후에야 처음 했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원래부터 산사태 전문가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비교적 빠른 3년 반 만에 박사 학위까지 이수한 뒤 유치과학자로 한국으로 돌아온 수곤 씨의 첫 직장은 대전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었다. 그는 그곳의 선임연구원이 되어 일을 시작했다.

"제가 박사 학위는 화강암이 풍화되는 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순수한 연구만 해서는 국내에선 살아남을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연구한 풍화는 땅이 붕괴되는 원인 중의 핵심 분야로 지하철, 터널 등에 응용될 수 있는데, 붕괴가 난 토목공사 현장은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 보니 연구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여름에 발생해서 수십 명씩 사망하고, 주택이 매몰되고, 고속도로 등의 교통이 두절되는 피해를 입히는 산사태 현장은 제한이 없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말만 국책연구소이지 70~80%는 공문 쓰고 결재 받느라 바쁘고 정작 연구는 20~30%밖에 없어서 답답하더라고요."

연구를 위해 직장을 떠날 결심을 했지만 실제 그곳을 그만두기까지

는 8년이 걸렸다. 그는 교수 임용에서 무려 6번이나 떨어졌다. 토목공학과 지질학을 복합으로 공부했다는 이유로 양쪽 분야에서 배척을 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며 최선을 다했던 그에게 서울시립대의 문이 열렸다.

한국에서 그는 지질학과 토목공학을 같이 공부해 이론부터 실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장점으로 폐쇄적인 국내 토목공학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배울 때는 힘들었지만 그걸 극복하니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 생겼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학계에서는 자기들 분야만 옳다고 학문 간의 벽을 높게 쌓고 학문 간의 융복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땅이 붕괴되는 사고에 대한 문의나 신문방송 인터뷰 등은 1990년부터 모두 그에게 집중됐다.

지금 일어나는 재난재해들은 우리 사회가 만든 인재(人災)에요.

1997년도에 수곤 씨는 서울 산사태 위험 지역 논문을 썼다. 서울을 개발할 때 지반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우면산은 위험 지역으로 이미 그의 논문에 포함되어 있던 곳 중 하나였다. 그 후 시간이 흘러 2011년 7월 27일,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며 우면산사태가 일어났다. 같은 산의 3군데에서 토사가 길거리, 주택가로 쏟아지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초구의 무분별한 난개

발 결과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1998년에 대도시 난개발에 따른 싱크홀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서울시 지반관리시스템에 서울 싱크홀 지도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고, 16년 후인 2014년 8월,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에서 거대한 싱크홀이 6개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 싱크홀 지도가 또다시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다. 전 세계 산사태 분야의 대가 22인 중 한 명인 그에게 사람들은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이유를 묻는데,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난재해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싱크홀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산사태도 역시 매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재난은 새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건데 못 찾고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는 신문과 방송 매체에 끊임없이 직언을 했다. 산사태 일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죽는데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방송뉴스에서 사고의 원인에 대해 명쾌히 설명해주던 그는 사고의 공사업자에게 명예훼손 소송까지 당한 적도 있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산사태로 억울하게 죽어도 아무도 그 사람들 편을 들지 않아요, 강자인 정부 편을 들지. 거기서 돈이 나오거든요. 이런 현상이 관행이 되었기에 제가 2001, 2002년도에 KBS 시사 프로그램까지 함께 만들었어요. 토픽이 산사태 문제였는데 제목이 '무너지면 돈 번다는데', '무너지면 하늘 탓' 이거였어요."

2년에 걸쳐 방송된 보람도 없이 그 후에도 똑같은 원인으로 재난은

계속 찾아왔다. 2002년 태풍 '루사'가 왔을 때 김해 농공단지가 무너졌다. 산을 깎아 김해시가 농공단지를 만들어 민간에 분양한 곳에 많은 비가 오며 무너진 것이었다. 20명이 매몰되고 19명이 도망 나왔지만 1명은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매출이 300억이 되던 가구 공장은 한 순간에 망했다. 원인 규명을 둘러싸고 학회와 전문조사기관 사이에 논쟁이 계속 되었고, 피해자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소송을 했지만 모두 소송에서 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 사건을 국내 방송에도 여러 번 알렸고, 유명한 국제 저널에도 알렸는데 당시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바뀌는 건 없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보며 저는 2011년 우면산사태를 떠올렸어요. 우면산 산사태도 앞서 설명한 김해 농공단지와 거의 똑같은 과정을 겪었으니까요.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은요 형태를 달리할 뿐 근본 원인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만든 인재인 거예요."

꿈을 얼마나 크게 꾸느냐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커져요.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수곤 씨는 가수 김민기의 노래 '친구'의 가사 한 구절을 입에 담았다.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저 혼자 사회를 바꿀 순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의 디딤돌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울림이 돼서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바꾸고, 또 다른 누군가가 조금 더 바꾸고, 그렇게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사회 개선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젊은 학생들에게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보다도 올바른 생각을 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되 하고 싶은 것, 자기 소양을 찾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가 꿈꾸는 인생의 최종 목표는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지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말고 사회에 불의가 있다면 틀렸다고 말하는 용기로써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저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말하길 이론에서 실무까지 이어지는 논문을 쓰라고 해요. 실무에서 깜짝 놀랄 연구를 해야 하는 거지 이론만 파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꿈을 100% 가지고 노력하면 90%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을 30% 꾸면 20%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어요. 꿈을 얼마나 크게 꾸느냐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커져요. 실력이 없더라도 꿈이라도 야무지게 꾸면 저절로 그쪽으로 행동이 변할 겁니다."

04

동물에 대한 관심으로 야생의 동물을

야생동물을 치료하여 발견한 장소로 돌려보내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재활사

박용현

• **누구의 이야기?**	동물과 자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야생동물 재활사
• **하는 일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한 후, 야생동물의 상태에 따른 치료와 재활훈련을 거쳐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어린 시절 다양한 동물을 키움→2년제 대학 동물과학과 입학→군견병으로 군 생활→전역 후 복학하여 2학년 여름방학 때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에서 인턴십→4년제 대학 축산학과로 편입→영국으로 어학연수(야생동물을 대하는 자세를 배움)→경기도 소재의 한 동물원에서 일주일간 근무→김영준 수의사의 소개로 지금의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로 옮겨와 야생동물재활사로 근무하고 있음
• **장래 포부**	강연, 인터뷰, SNS 등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 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것과 대학원에 들어가 경험만으로는 부족한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는 것
• **그의 한마디**	화려한 일, 남들이 하는 일들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열어보고 멀리 내다보며 각자 저마다의 역할을 찾아갔으면 한다.
• **더 알고 싶다면**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홈페이지 http://cnwarc.blogspot.kr/

박용현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재활사

동물들은 자동차, 총, 덫, 농약 등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는데, 자연 속에서 사는 야생동물에게는 다쳐도 돌봐줄 주인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라니가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상처 입고 발견되는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치료하고, 재활을 도와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야생동물구조센터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2개의 구조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는 활발한 활동으로 가장 큰 성과를 보이는 곳이다. 박용현 씨는 2년 반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야생동물재활사로 일하며 보내고 있다.

그는 여느 아이들처럼 밖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대중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마음을 빼앗겼던 대상은 바로 동

물이었다. 그는 비단잉어부터 곤충, 거북이, 햄스터,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을 키웠고, 지금은 13년째 함께하고 있는 강아지와 살고 있다. 좋아하는 것에서 꿈을 찾고, 다시 그 꿈을 키워나갔던 그의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동물을 가까이 했어요.

용현 씨는 외동아들로 자란 탓인지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여행을 다녀올 때면 그의 품에는 집에서 키울 생각으로 잡은 물고기가 있었고, 성당을 가는 길에 있었던 수족관에 들르지 않는 날이면 울면서 부모님께 보채기 일쑤였다. 그런 아들의 고집을 이기지 못한 부모님은 그에게 어항을 사주셨고, 그는 스무 살이 될 때까지 15년이 넘도록 비단잉어를 키웠다.

"제일 오래 키웠던 동물이 바로 그 비단잉어였어요.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손바닥 크기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엄청 커졌죠. 희한하게도 재건축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 시기에 죽어 버려서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말티즈를 키우고 있는데, 2003년 12월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13살이 되었죠. 사실 어머니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형제 없이 혼자 자라는 아들을 배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느 남자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공부보다 노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즐겁게 지내던 그는 중학생이 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친한 친구들과 헤어지고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던 그는 그때 유독 자신을 못 살게 구는 한 녀석을 만나게 된 것이다. 돈을 빼앗기고 맞기도 하면서 늘 겁에 질려 학교생활을 하던 그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게다가 작은 키마저 콤플렉스가 되어 그를 괴롭혔다. 그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깊은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그가 다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세상과 맞설 용기를 낸 것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였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부터 부모님 몰래 격투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이기고 싶었거든요. 무작정 관장님을 찾아가 제 사연을 말씀드렸더니 이해하시고는 체육관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3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하면서 키도 크고 덩치도 커졌어요. 그 덕에 자신감도 얻었지만 무엇보다도 격투기 자체가 너무나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며 아마추어 경기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학교에는 열심히 나갔지만, 운동에 집중하다 보니 성적은 엉망이었다. 그는 대학에서 운동을 전공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운동을 전공하는 것을 반대하셨고, 그 역시 그러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문득 초등학생 시절 자신의 장래 희망이 사육사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더구나 격투기를 비롯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도 늘 동물을 가까이했던 그였다. 그때부터 그는 운동을 끊고 단과학원에 다니며 뒤늦게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에 전념했다. 수능을 마치고 동물 관련 학과라면 가리지 않고 전부 지원한 그는 2년제 대학의 동물과학과에 들어갔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야생동물을 보며 제 손으로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지만 용현 씨는 대학 생활이 즐겁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었고, 철부지 같은 동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스물한 살이 되면서 군 입대를 하게 된 그는 평소 하고 싶었던 군견병의 기회를 얻어 군견을 훈련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 전역을 하고 대학으로 돌아온 그는 2학년 여름방학에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에 인턴십을 나가게 되었다. 1980년에 설립된 그곳은 야생동물센터로는 전국에서 최초에 가까운 곳이었다.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 이외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그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며 야생동물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당시 그곳에 계시던 김영준 수의사님이 어린 고라니들이 족족 죽는 것을 보시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고심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돌보라며 새끼 고라니를 맡기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애지중지 돌본 야생동물이었죠. 낮에는 햇빛 보라고 풀숲에 숨겨놓고 분유 타서 먹이고 했

더니, 제가 부르면 튀어나오고 저를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 새끼 고라니가 살아남아서 방생까지 됐는데, 인턴십이 끝나고 추석 때 가서 보니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당시에는 좀 야속했지만 야생동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각인이 되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는 새끼 동물이 미아가 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납치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어미가 근처에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쁘고 불쌍하다며 데리고 와버리는 것이었다. 새끼 고라니를 돌보며 야생동물들을 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지 고민하게 된 그는 인턴십 이후에도 방학 때면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했다. 김영준 수의사를 비롯하여 그곳에서 알게 된 분들은 지금도 그에게 도움을 주는 소중한 지인들이 되었다.

"생전 처음 보는 동물들이 신기하고 예쁘기도 했지만, 사람들로 인해 상처 입고 들어온 야생동물들이 너무 불쌍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자동차 충돌, 유리창과 전선 충돌, 납치, 총상, 올무, 덫, 농약, 쥐 끈끈이, 각인 등 동물들이 다치는 이유는 다양했어요. 야생동물은 애완동물,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들과 달라요. 자연에서 살다가 다쳐도 주인이 없는 동물이니까 아무도 치료해 주거나 보호해 주지 않죠. 특히 도로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야생동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부터 야생동물을 내 손으로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그는 4년제 대학의 축산학과로 편입을 했다. 축산학과는 소, 돼지, 닭이 주가 되다 보니 야생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온 학생은 용현 씨밖에 없었다. 교수를 포함하여 야생동

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는 철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야생동물에 관한 졸업논문을 쓰기도 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의 일부로 보는 영국 사람들의 태도에 놀랐어요.

용현 씨는 축산학과에 편입한 이듬해 영국의 브리스틀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학생 신분으로 외국을 경험하고 영어 실력 또한 키워볼 생각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영어보다 문화적인 부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야생동물과 자연을 대하는 영국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나라와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길고양이가 많듯 영국 도심에는 여우가 많은데, 어느 날 여우가 여름밤 문을 열고 잠든 한 가정집에 들어가 아이를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우는 야행성이고 잡식인, 개과의 맹수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여우를 다 때려잡아야 한다고 분노하겠지만, 영국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안타깝지만 문을 열고 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잃은 당사자는 억장이 무너지겠지만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 언론에서도 여우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아무도 그러지 않더라고요. 한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의 일부로 보는 그 사람들의 태도에 적잖이 놀랐어요."

여우뿐만 아니라 영국에는 우리나라의 비둘기만큼이나 갈매기가 많

았다. 갈매기가 날아와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낚아채 가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기는 것을 보며 그는 사람과 야생동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생명에 대한 존중감과 동물 구조 시스템 역시 그 거리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길고양이를 싫어하고, 비둘기에게 돌 던지고 하는 그런 무질서한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어요. 우리나라가 빠른 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부분들을 놓친 것 같아요.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개발, 돈, 그런 것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이었지만, 일주일 만에 나올 수밖에 없었죠.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용현 씨에게 남은 것은 야생동물과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뿐이었다. 야생동물과 함께하는 일은 국가사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극소수였고, 그나마 있는 자리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연결이 되고 있어 1년 가까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지냈다. 그래도 동물과 관련된 직장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제약회사, 사료회사 같은 곳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 또한 쉽지가 않았다. 철원에서 만난 수의사 지인을 통해 서울대공원의 계약직 공무원 사육사 자리에

지원하기도 했지만, 이미 경력이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를 이겨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집에 있으면 가시방석이니까 노트북 들고 나와 카페에서 일자리 뒤지는 게 일상이었어요. 남산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저 많은 건물 중에 내가 있을 자리는 왜 하나도 없을까.' 하고 한탄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졸업하고 10개월 정도가 지났을 즈음 경기도 소재의 한 동물원에 합격해서 사육사 일을 시작했어요."

어렵게 얻은 일자리였지만 그는 일주일 만에 그곳을 박차고 나와야만 했다. 신입 사육사에게 험한 말을 하고, 얼음이 어는 한겨울에 여름용 장화를 신고 고무장갑 없이 일하게 하는 등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동물이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 있는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다.

"바다사자를 때리고, 곰을 무리하게 훈련시키고, 오랑우탄에게 수갑 채워서 때리는 것도 목격했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오랑우탄은 정말 똑똑한 영장류예요. 대여섯 살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표현은 못하지만 말을 다 알아듣거든요. 철창 안에 갇혀 잔뜩 겁을 먹은 상태인 오랑우탄을 때리는 광경을 보고 신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밖에 위생 관리도 엉망이었어요. 먹이가 있는 곳에 죽은 동물이 함께 있고 그랬거든요. 그곳에서 배울 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야생동물구조센터는 늘 대기해야 하는 병원 응급실과 비슷해요.

동물원을 그만두고 어느 날 용현 씨는 철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김영준 수의사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 자리가 생기게 되었는데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었다.

"야생동물재활사는 국내에서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직업이에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한 뒤 상태에 따라 치료를 하고 재활훈련을 거쳐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죠. 물론 수술은 수의사들이 하지만, 그 외에 재활을 포함한 업무 전부를 재활사가 총괄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동물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재활사를 중심으로 센터가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역사가 짧다 보니, 아직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형태죠."

그는 구조, 응급처치, 간단한 수술과 심지어 잡일과 재봉 등에 이르기까지 야생동물재활사는 모든 일에 능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류장을 새로 짓거나 혹은 용접, 그 외 여러 야외 작업들, 혹은 천막 수선이나 장비를 만들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만큼 사람이 없으니 야생동물재활사는 다재다능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야생동물재활사 3년 차에 접어든 그는 퇴근이라는 것이 따로 없이 늘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하는 구조센터가 병원 응급실과 비슷하다고 했다. 병원 응급실처럼 워낙

응급 상황이 많이 생기는 곳이 바로 구조센터이기 때문이었다.

"야생동물을 구조했을 때 불구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안락사를 집행하거나 교육용 동물로 지내게 되요. 하지만 구조센터의 최종 목표는 '방생'이에요. 저는 현재 센터에서 야생동물 구조, 방생을 담당하고 있어요. 방생에서 중요한 것은 발견된 장소에 다시 풀어주는 것이에요. 안전을 위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결국 어미에게는 새끼, 새끼에게는 어미가 있는 장소가 돌아갈 장소가 되곤 하죠. 동물의 성장 상태, 부상 정도, 임신 및 출산 상태 등에 따라 방생해야 하는 시기, 장소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방생을 하면 죽어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동물마다 생존할 수 있는 방생 시기와 장소 등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저희만의 매뉴얼을 계속 만들어 가는 중이에요."

경험만으로는 부족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언젠가 대학원에 들어갈 계획이에요.

2014년 국제 WARN(Wild Animal Rescue Network Conference)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용현 씨는 홍콩을 다녀왔다. 각 나라의 야생동물, 멸종위기 종에 대한 현황을 발표하는 그곳에서 그는 수리부엉이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나라의 발표를 들으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열정과 국가적인 지원 규모,

밀수출 및 밀반입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시스템 면에서 우리나라는 후진국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국제적인 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해 500년이 넘은 원시림을 파괴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활동가들에게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면 사색이 되죠. 제가 할 일은 그런 문제들을 더 많이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SNS를 통해 홍보도 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죠."

같은 일을 반복하며 일에 치여 살다 보니 그는 문득 자신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연구할 주제나 분야를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경험만으로는 부족한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자 언젠가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지금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 야생동물재활사는 그러한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동물들이 정말 종류가 많거든요. 야생동물재활사를 꿈꾼다면 적어도 날아가는 새를 보고 그 이름이 뭔지 궁금해 하고, 또 찾아보며 그 동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정도의 호기심과 성실함을 갖춰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동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질병, 생태 등을 포괄적으로 알아야 하죠. 구조센터를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왜 이 일을 하고 싶은 것이냐고 물으면, 동물이 예뻐서 왔다고 말해요. 야생동물재활사는 단순히 동물이 예쁘고 호기심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데 말이죠."

그는 야생동물재활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이기는 하지만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별도의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구조센터에서 견학이나 자원봉사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찾아오기 전에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려놓은 온라인 홍보자료를 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한 다음 찾아오기를 당부했다. 더불어 구조센터가 아니라도 야생동물과 관련된 소모임이 많이 있으니 그런 곳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하여 자연이나 동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연환경과 야생동물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분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자연이 황폐해지고 동물이 없어진다면 결국 우리 모두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부심을 가지고 제 일에 임할 생각이에요. 청소년들도 화려한 일, 남들이 하는 일들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열어 보고 멀리 내다보며 각자 저마다의 역할을 찾아갔으면 해요. 그리고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스스로 원하는 길이라면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05

환자의 회복에 감사함을 느끼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

응급한 사람들의 1차 치료를 책임지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최유진

• **누구의 이야기?**	미국 드라마 〈ER〉을 보며 의사를 꿈꾸고, 의대 본과 실습을 계기로 응급의학과를 선택하게 된 의사
• **하는 일은?**	의사로서 응급실을 찾아온 환자를 돌보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고등학생 때 선생님의 권유로 이과 선택 → 의대 진학 → 의대 졸업 후 인턴 생활을 하다가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인해 1년간 휴식 → 현재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음
• **장래 포부**	오랫동안 건강하게 환자를 보는 것
• **그의 한마디**	의사는 돈과 명예보다 먼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최유진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사람들은 몸에 이상을 느끼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을 떠올린다. 첫 번째는 119에 전화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다.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든 직접 병원을 찾든 긴급하게 병원으로 도착한 환자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응급실이다. 급한 정황에 대처한다는 '응급'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정해진 분야는 없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은 기초적인 의학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그러기 위해 늘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4년 차 최유진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의사의 길을 선택하고 회의감이 들 때마다 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고민을 했다는 최유진 씨를 만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미국드라마 〈ER〉을 보다가 처음으로 의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외교관을 꿈꿨어요. 의사로 진로를 바꾸게 된 것은 자의 반 타의 반이었던 것 같아요. 고1 때 문과를 가려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봐 왔는데 너는 이과에 들어가서 의사를 하는 것이 어울린다.'고 하시면서요. 이과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외교관은 의사를 할 수 없지만, 의사는 민간 외교관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일단 이과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정말 고생했죠."

문과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공부를 해왔던 그녀는 1학년 겨울방학 한 달을 하루 종일 학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이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노력을 기울인 것은 선생님의 말씀처럼 의사를 목표로 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과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공대를 다니던 오빠를 따라 공대에 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대는 좀 더 천재적인 사람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의학 계열의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다가 세부 분야가 더 다양한 서양의학 쪽으로 가기로 결심했죠. 그러던 차에 보게 된 것이 미국 드라마 〈ER〉이었어요. 제가 의사를 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더니 큰삼촌이 미국을 다녀오시면서 〈ER〉 DVD세트를 사오셨거든요. 시즌 1, 2를 이어서 끝까지 보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의사라는 일이

재미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의대에 들어갔어요."

'응급' 상황을 '차분'하게 지도하시는 전문의 선생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의대는 2년 과정의 예과를 마치고 전공과목을 배우는 4년 과정의 본과로 넘어가는 방식이었다. 의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렵고 힘든 본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유진 씨는 예과 생활을 하는 동안 앞으로 누릴 수 없을 자유를 만끽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녀는 성적에 대한 욕심을 내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다양한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예과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본과 생활은 갑갑하고 감옥같이 느껴지는데, 정도로 따지면 고3의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의대생이 된 저를 지켜보시던 친척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의사가 되는 길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안 시켰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죠. 더구나 의대는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경쟁하는 분위기도 강했고, 매번 결과표를 받을 때마다 친구들이랑 비교가 되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는 잘 버티고 이겨냈지만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본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녀는 훗날 응급의학을 선택하는 데 결

정적인 계기가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함께 환자, 보호자, 구조대원, 상황실, 의사 등 각각의 역할을 맡아 '의과대 안에서 환자가 쓰러져 있다는 상황'을 가정한 상황극 실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한 여성 전문의 선생님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응급'과 '차분'은 극에 있는 단어 같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응급 상황극 실습을 '차분'하게 지도하시던 그 여성 전문의 선생님의 모습이 제게 인상 깊었던 것이죠. 인턴 생활을 하던 첫해에 저는 마취과와 응급의학과 중에 어떤 과를 선택할지 고민을 했었어요. 의사라면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바이탈을 살린다는 것인데 그런 개념에서 바이탈을 다루는 응급의학과와 마취과 중에 고민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때 응급의학과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데 상황극 실습 때 만난 그 선생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인턴으로 일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를 보는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질환의 환자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다양한 질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기본 지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추가적으로 공부하

면서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는 과가 바로 응급의학과이죠."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유진 씨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채혈을 하고, 수술장 카트를 끄는 등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병원 일을 하던 중 손목터널증후군이 찾아온 것이었다. 양쪽 손목으로 전해지는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일을 쉴 수 없었던 그녀는 그때 자신의 건강을 어디까지 희생하면서 일을 하는 게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에 의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인턴 생활을 마치고 우선 1년을 쉬기로 결정했다.

"휴식기 1년 중 첫 달은 핸드폰도 버려 놓다시피 하고 정말 쉬었어요.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원 없이 먹고 자고 쉬었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 느낀 것이 '내가 백수로는 못 살겠구나.', '일을 해야겠다.'는 것이었어요. 특별한 목적 없이 집에서 보내는 생활이 저에게 맞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의사를 하면 지금처럼 여유 있는 시간이 다시는 없을 것 같아 4월부터는 장기 여행을 다녔어요. 미국과 아프리카 등 3개월 반 정도 다니면서 인턴하면서 번 돈을 다 써버렸죠.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전공의 시험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1년을 알차게 보냈는데, 그 시간으로 인해 대학 동기들과 격차가 벌어져 인간관계 면에서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지,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저한테는 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그 영향은 미미했죠."

의사들은 항상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각오가 필요하죠.

메르스가 발생한 지난 6월 당시 메인 치프였던 유진 씨의 일상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기 응급실이기 때문에 메르스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그녀와 동료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응급실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전염되기 시작하면 온 병원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모두들 희생을 감수하고 끝까지 응급실을 지켰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당시 공포감이 굉장히 컸죠.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벌어졌으니까요. 몇 해 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에도 그랬듯이 잘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사실 응급실 사람들은 평소에도 메르스 이외에도 결핵 같은 전염성 질환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아마 응급실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의사가 그럴 거예요. 의사는 자신의 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환자에게 병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위생에 더 신경을 쓰죠.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자주 씻고 하면서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전염되는 경우는 정말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수두 면역이 없던 상태라 인턴 때 환자에게 수두를 옮은 적이 있었지만, 그런 것이 싫다면 의사를 못했을 거예요."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라서 의사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시선에 그녀는 불편함을 표했다. 그녀

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환자가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한 자신의 직업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응급실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는 못해요. 응급실에 실려 오는 분들은 공황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응급실의 도움을 받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적거든요. 그럼에도 가끔 고맙다며 음료수를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 정말 감사하죠."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게 환자를 보고 싶어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편이 좋아요. 응급실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이고, 서로가 톱니바퀴처럼 일을 함께 해나가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와요. 나 혼자 잘해서는 소용이 없죠. 환자에게도, 동료들에게도 애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응급실이 한창 바쁠 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한 가지 일을 할 때 다른 일을 못하는 사람은 적응하기 힘들겠죠."

의사마다 환자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진 씨의 경우는 전자였다. 그래서 그녀가 의사로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환자를 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잘 살펴가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게 환자들을 돌보고 싶다고 했다.

"저는 진로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의대를 다니면서도 크게 두 번 정도 저와 맞지 않는다는 고민을 했고, 의사면허시험 합격 후 의사가 된 후에도 다른 직업을 찾아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턴을 하다가 휴식기를 가졌던 1년 동안에는 환자를 보는 의사 말고 다른 의사가 되는 것은 어떨지 고민하기도 했죠. 항상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직업만 두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적성을 먼저 알아봐야 나중에 후회가 덜할 거예요. 적성이라는 것을 심각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는지 충분히 고민해 보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기회가 될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꾸준히 알아보면서 왔기 때문에 지금 후회가 없어요. 앞으로도 비슷하거나 또 다른 고민을 할 때가 오겠지만, 진로는 한번 선택한 후 변하지 않거나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무얼 더,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제 앞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06

36년 경력의 토목공학 전문가이자 교육자

재난을 예방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꿈꾸다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전찬기

• **누구의 이야기?**	토목공학을 전공한 이래 36년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토목공학, 재난, 방재 전문가
• **하는 일은?**	도시 재난, 방재와 관련된 연구 및 활동에 매진하며 대학에서 그에 관한 강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이후 같은 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 취득)→1981년부터 대학 강단에 서기 시작→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계기로 구조물 진단 활동 시작→2013년 〈한국재난정보학회〉 5대 회장으로 취임→2015년 6대 회장으로 연임→현재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설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
• **장래 포부**	도시 재난, 방재 분야에 집중하며 도시공학 분야의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것
• **그의 한마디**	어느 분야든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 **더 알고 싶다면**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 홈페이지 http://sodi.or.kr/

전찬기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1994년 한강의 11번째 다리인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문가와 구조공학을 전공한 교수들을 모아 구조물 진단을 시작했다. 이듬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세월호 침몰(2014년) 등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전찬기 교수는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36년 경력의 토목공학 전문가이자 재난 및 방재 전문가이다.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으로,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설공학과 교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방재산업과 안전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찬기 교수를 만났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구조물 진단을 시작했어요.

전찬기 교수가 처음 토목공학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던 때였다. 나라가 가난하여 취업이 어려웠던 그 시절, 그는 미래의 건설 시장은 취업이 잘될 것이라는 생각에 토목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진학한 이후 신현묵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만나게 되어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지금은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재난을 다루는 활동을 하는지 의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설명을 조금 하자면,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태풍과 홍수, 해일, 산사태처럼 기후와 관련된 재난은 모두 자연재난으로 분류되죠. 이를 예방하는 일은 모두 토목공학 전문가들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재난 중에서도 건축물이나 교량의 붕괴 역시 토목과 연결되죠. 그러다 보니 토목 분야의 사람들이 재난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민안전처에 토목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19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토목공학을 전공하며 세부 전공으로 구조공학을 공부한 그는 그때 건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더불어, 교량, 터널을 비롯한 모든 구조물과 건축물이 안전한지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일을 할 마땅한 전문가가 없었다. 전문가가 있

다면 그처럼 대학에서 구조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뿐이라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그들에게 구조물 진단을 맡겼다.

"구조물은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의 얼굴을 살피고, 어디가 안 좋은지 물어보죠. 그러고 나서 청진기를 대본다든지 만져 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내시경과 같은 검사를 하거나 수술을 하고요. 구조물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눈으로 보고 균열이 생긴 부분을 살피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망치 같은 것으로 두드려 보기도 하며 문제 여부를 판단하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초음파, 엑스레이 등 장비를 총동원해서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단하기도 하고요."

그를 비롯한 구조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구조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한 결과와 더불어 어떤 부분에 보강이 필요한지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 후로 구조물 진단에서 더 나아가 직접 장비 다루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20년 가까이 계속 활동해 오던 전문가들은 관련 학회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10여 년간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지던 〈한국재난정보학회〉는 10년 전 정식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2013년 5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을 활동한 전찬기 교수는 2015년 6대 회장을 연임하게 되면서 3년째 회장으로서 학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고 〈한국재난정보학회〉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한국재난정보학회〉에는 재난/재해, 소방, 의료/보건/법/보험, 경찰/경호/경비, 건설/해양, 도로/환경/교통/철도, 국방/민방위, 산업안전/위험물, 정보/IT/GIS, 에너지/원자력, 이렇게 10개의 분야가 있다. 전찬기 교수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서 전쟁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회 안에 다양한 분야가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가 5대 회장이 되고 2014년에 학회를 정비하고 키우기 위해 홈페이지를 비롯한 많은 부분을 바꿨어요. 이름이 '재난정보학회'인 만큼 정보가 많아야 하잖아요. 직업이 아니어서 매일 할 수는 없었지만 1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하는 일을 했죠. 그러다가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1993년 서해페리호 침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큰 사고가 많았지만 세월호 사고는 또 다른 충격이었죠. 어린 학생들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했고, 구조를 할 수도 있었는데 놓쳤고 사고 이후에는 배를 운영하는 회사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드러났으니까요."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재난정보학회〉뿐만 아니라 재난, 안전 분야의 전문가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그는 그해 5월 〈한국재난정보학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이

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던 학술대회는 세월호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전문학회이다보니 영세해요. 그래서 사실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2014년 5월 학술대회 이후로 끊임없이 세미나도 하고 학술대회도 개최했어요. 그리고 2015년 5월에는 '재난 경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어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제안을 해왔거든요.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 50명 이상 참여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13개국에서 80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국인도 500명이나 참여했죠. 몇 개월을 준비한 끝에 어렵게 열었던 국제학술대회는 그렇게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어요."

예산을 지원한 경기관광공사는 현장 운영과 결과의 성공 여부를 평가했는데, 그 결과는 가장 좋은 점수인 A+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매년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

사회 안전, 생활 안전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공영방송에서 해주길 바라죠.

2015년 3월, 전찬기 교수는 세계재난학회 참석차 일본 센다이에 다녀왔다. 센다이는 2011년 3월에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이후 4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컨테이너 생활

을 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세계재난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5천여 명의 사람이 센다이를 찾았다. 그중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있었다.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였지만, 그가 중요하게 본 것은 단순히 규모만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던 만큼 뉴스와 신문에서 관련 소식을 보도했고, 그로 인해 세계재난학회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는 데도 성공적이었다.

"그때 들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쓰나미가 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질문에 관한 것이었는데, 결론은 간단했어요. 경보가 울리면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찾지 말고 대피소로 가라는 것이었죠. 대피소에 가면 다 있을 테니까 일단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과 몇 초 안에 다 목숨을 잃게 될 테니까요. 이런 것을 계속 교육하고, 또 다들 그렇게들 알고 있더라고요."

유치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어떻게 대피하는지를 보기 위한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장롱이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결과가 있다. 그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재난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완강기'*라는 것이 있는데, 사용법은 고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습해 보지 않아도 위급한 상황

*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

이 발생하면 바로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서 그 사용법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소화기나 다른 안전기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공영방송이 사회 안전, 생활 안전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방재산업 분야는 이제 블루오션이 되었어요.

"균열이 생기면 센서를 붙이고, 컴퓨터에 복잡한 연결을 해요. 그리고 차가 지나갈 때 센서에 변화가 생기면 컴퓨터가 그것을 찾아냅니다. 처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진단을 할 때에는 센서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했어요. 센서도 그 종류가 다양해서 붙이는 것도 있고 매다는 것도 있는데 전부 일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배워왔죠."

토목공학(土木工學)이라고 하면 '흙 토(土)'와 '나무 목(木)' 자가 들어가다 보니, 다소 거친 느낌이 있다. 게다가 교량, 도로, 터널과 관련된 일이라서 묵직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전찬기 교수는 그런 토목공학에서 균열을 측정할 때, 1mm의 천분의 1 그러니까 1m의 백만 분의 1(마이크로 단위)을 측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면 다른 전공자들이 깜짝 놀라곤 한다고 했다. 20년 전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하여 재난을 예방하는 일의 전문가가 된 그는 방재산업 분야가 이제 블루오션이 되었다며 그 가능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방재산업 하면 소방대원을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무엇을 전공했든 방재산업의 길은 열려 있어요. 만약 전산과를 나왔다면 IT정보를 가지고 앱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비상통로 안내를 하잖아요. 눈여겨보기야 하겠지만 불이 나면 사실 어디가 앞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 전방 몇 미터, 좌측으로 몇 미터 이렇게 안내를 하며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만드는 것이죠. 그 밖에도 감염 예방 마스크를 만든다든가 드론, 로봇, 첨단 소방장비, 감지 기계 등을 개발하는 것과 데이터 분석, 통계 처리도 방재산업의 일부에요."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 방재산업 안에서 공무원이 되는 길도 있는데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 국사, 영어를 기본으로 재난 관리, 안전 관리 이렇게 두 과목을 더 공부해야 한다. 현재 국민안전처에는 해경 8천여 명을 포함하여 1만여 명이 소속되어 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의 경우 17만 명의 방재 인력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방재 인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른바 선진국의 첫 번째 조건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이 쾌적하고 보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편적 복지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이 바로 '국민의 안전'이에요. 우리나라는 의식주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고,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소 논란은 있지만 복지도 괜찮은 수준에 와 있어요. 하지만 안전은 빵점이에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

안 소홀히 했던 '안전', 다시 말해 방재산업이 블루오션이 되는 거예요. 안전은 무언가 채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 누군가가 관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직업으로도, 사명으로도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도시 재난, 방재 분야에 집중하며 도시공학 분야의 학생들을 이끌어가고 싶어요.

전찬기 교수는 현재 〈한국재난정보학회〉의 회장인 동시에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설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그는 대학에서 지원을 받아 『도시재난 및 안전관리』라는 책도 만들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었다는 그 책은 PPT 자료로 800쪽에 육박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그 책으로 한 학기 16주의 강의 자료를 만들고, 틈틈이 재난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지금 대학교 1학년들 교양과목으로 안전 수업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오리엔테이션을 갈 때도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기계, 전기, 화학약품 등 실험기자재를 다루는 실험실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다못해 완강기 사용하는 법, 심폐소생술 그런 것이 교양수업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재난의 피해를 줄이고, 위급 상황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는 교수 생활을 한 지 올해로 36년이 되었다.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던 세월까지 다 합하면 45년 이상을 토목공학 분야에서 일해 온 셈이다.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는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다. 그가 세운 인생의 최종 목표는 도시 재난, 방재 분야에 집중하며 도시공학 분야의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성수대교 사고가 일어났던 그때는 제가 20년 후에 〈한국재난정보학회〉의 회장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열심히 일하며 실력을 쌓았고, 또 노하우를 쌓다 보니 전문가가 되었고, 학회에서 활동하다 보니 어느덧 회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죠. 저는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안다는 것이 사실 엄청 큰 차이예요. 그 어떤 단계를 넘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항상 말하고 싶어요. 어느 분야든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이전에 겁내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



안전분야

Safety

위험에 맞서며 안전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커리어패스 사례집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 안전분야
교육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